

소 판 돈 수금하러왔다 총탄에 스러지고 혼자 살아남은 죄책감에 평생 트라우마

40년 견뎌온 모진 세월

문재인 대통령이 위로한 유가족들 사연

고 임은택씨 부인 최정희씨
광주교도소 암매장지서 남편 발견
“3남매 잘 키운거 칭찬해줘요”
그리움 담은 편지 눈물의 낭송

이연 열사 아내 김순희씨
계엄군에 모진 고문·폭행 당해
고통의 나날 속 남편 지난해 숨져
“이젠 희망의 5·18로 발전하길”

문 대통령 “아픔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에도 트라우마 센터 건립”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이후 3번째로 찾은 제 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과 5·18 국립묘지에서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유가족들에게는 “더이상 생존자와 유족들의 트라우마가 그 가족,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에도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남편 향한 그리움 ‘편지’에 담은 최정희씨 위로= “다시 만나는 날 나 너무 늙었다고 모른다 하지말고. 3남매 반듯하게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칭찬해주세요. 참 잘했다고.”

최정희(73)씨는 18일 열린 제 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총탄에 사망한 남편 임은택(사망 당시 36세)씨를 향한 그리움을 담은 편지를 울먹이며 읽어내려갔다.

최씨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은 낭독이 끝난 뒤 최씨

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고 김성숙 여사도 악수를 하며 다독였다.

최씨의 남편 임씨는 1980년 5월 21일, 저녁을 하고 있던 부인에게 소 판 돈을 수금하러 광주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다.

최씨는 남편을 찾아 광주 곳곳을 돌아다니다 10일 만인 5월 31일 광주교도소 인근 암매장 시신 발굴 현장에서 맞닥뜨렸다.

최씨는 편지에서 “젊은 나이에 3남매 키우며 살기가 너무 팍팍해서 맥없이 가버린 당신이 원망스러웠는데, 이제는 서른여섯 나이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당신이 불쌍하기만 하다”며 울먹였다.

최씨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 국제시장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한 뒤 1978년 남편 고향인 담양 대덕으로 이사해 소를 키우며 오순도순 살다가 5·18을 겪었다.

돌아오겠다던 남편을 암매장지에서 찾은 최씨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울부짖었

다. 부검을 위해 조대로 옮겨졌을 당시 임씨는 구두 한 짝과 팬티만 입은 상태였다. 오른쪽 다리·오른쪽 어깨·왼쪽 무릎·옆구리까지 4발의 총상이 있었다. 임씨는 지난 1997년 5·18국립민주묘지로 옮겨왔다.

◇후유증으로 고통받다 숨진 이연 열사 가족들 위로=문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국립 5·18 묘지를 찾아 지난해 7월 숨을 거둔 이연 열사의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씨 아내 김순희(55)씨는 “5·18 이후 후유증이 많았나”는 문 대통령 물음에 “그곳(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진압작전)에서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을 갖고 사셨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은 행복하게 살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힘들게 했고 지난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죄책감이란 착한 사람이 갖는 것”이라며 위로했다.

국립 5·18민주묘지 2묘역 1-57 묘역에 자리한 이연 열사는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진압작전 당시 YWCA를 사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죽을 각오로 계엄군과 맞섰지만 보유했던 구형 총기의 노리쇠가 고장나면서 계엄군에게 붙잡혔다.

이 열사는 80년 10월 30일 형집행정지 명령으로 풀려날 때까지 계엄군에 의해 모진 고문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소 뒤 전남대를 그만 두고 서강대에 재입학한 이씨는 거처를 서울로 옮기면서 살아남았다는 죄의식으로 5·18과의 연관성을 감추고 살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80년 5월 당시 희생된 남편의 사연을 편지형식으로 낭독한 최정희(가운데)씨를 위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씨는 그러다 5·18 백일장 대회 등을 계획하고 직접 심사위원까지 맡는 등 열정을 보이며 5·18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이씨는 생전에 아내에게 “상담치유센터

를 만들어 그들도 치유하고 우리도 치유하자”며 지난해 부인과 가톨릭대 대학원에 입학, 심리상담을 공부하던 중 세상을 등졌다. 아내 김순희씨는 “남편이 힘들게 버텨준

것도 애쓰는 것”이라며 “40주년을 맞은 5·18 이이제는 희망적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5·18 당시 상황 담긴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일기 보니

“학생들 붙잡는대로 대검으로 찌르고 총대로 신체 박살 냈다”

“18일 오후, M16 현대무기로 중무장한 군인들은 학생들을 붙잡는 대로 총에 쫓은 대검으로 찌르거나 총대로 신체의 어느 부분이든 치고 받으며 박살을 냈다”

5·18 당시 수배 중이었던 박석무(78·당시 대동고 교사)다산연구소 이사장이 1980년 6월 14~15일 계엄군을 피해 도망간 서울 은신처에서 작성한 일기는 5월 당시 광주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해 준다.

박 이사장이 원고지 뒷면에 140매 분량으로 작성한 ‘5·18 광주의거-시민투쟁의 배경과 전개과정’은 각 일자별 항쟁 상황과 발생 원인·의의, 교훈 등을 8개 장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이 일기는 당시 광주상황을 적나라하게 적고 있다.

5장 ‘광주의거의 경위’에는 계엄군의 진압과정을, 6장 ‘해방된 광주’에서는

수배 중 은신처서 140매 작성
환각제 먹인 뒤 공수부대원 투입
사람 쓰러지면 연막탄 뿌려 은폐
충격적인 광주 참상 상세히 표현

22~26일 평화적인 광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5월18일 계엄사측이 공수부대원들에게 환각제를 섞인 소주를 먹인 뒤 광주 시내에 투입시켜 학생 살육작전에 돌입했다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최초 발표 시점도 5월19일 계림동 앞이라고 기록돼있다.

계엄군은 사람이 쓰러지면 즉시 연막탄을 뿌려 상황을 은폐한 뒤 차로 신고 갔고, 시체에는 페인트를 칠해 시민들이 확인을 못 하도록 했다는 등 당시의 참

혹한 현실을 상세히 표현해 냈다. 박 이사장은 현장이나 계엄군의 만행 모습을 카메라에 담던 사진사들은 카메라를 빼앗기거나 붙들려 폭행을 당했고, 사진기자들도 맥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해 적었다.

22일 이후 수습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자발적 치안 유지, 거리 청소가 이어졌으며 경찰서 등 공공서도 시민군들에 의해 안정적으로 지켜졌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기록은 5월 광주의 참상과 그 배경까지 기록돼 있다는 점에서 5·18민주화운동의 흐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한편 이 기록 초본은 지난해 6월 5·18 기념재단에 기증돼 5·18 진상규명 및 왜곡 처벌 근거와 연구·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경찰청 안병하공원서 5·18 순직경찰관 추도식

5·18 순직경찰관들에 대한 추도식이 18일 전남지방경찰청 안병하공원에서 열렸다. 추도식 참석자들은 안병하 치안감, 이준규 총경, 함평서 소속 정종길 경사와 이세홍·박기웅·강정웅 경장의 희생정신에 애도를 표했다.

안 치안감은 5·18 당시 전남도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며 시민에 대한 신군부의 발표 명령을 거부하고 다친 시민을 치료했으며 목포경찰서장이던 이 총경도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정 경사 등은 1980년 5월 20일 옛 전남도청 경찰차지선 임무를 수행하다가 시위군중을 태운 버스에 치여 순직했다.

이 총경은 지난해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경찰의 파면 처분도 취소됐다. 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5·18 당시 경찰관으로서 소임에 충실했음에도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21명(전남경찰청 17명·경찰청 4명)의 징계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 지자체 처분 위법”

법원 “감사 결과 공개하라”

어린이집 감사정보를 비공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 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 북·남구정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공개한 어린이집 감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2018년 10월, 북구·남구지역 어린이집 감사계획서, 지도·점검대상 어린이집 명칭, 개별 위반항목, 현황 등에 대한 3년치 정보를 청구했다가 자치단체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었다.

이들 지자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라며 2015

~2018년 어린이집 감사 계획서·결과서 등을 비공개했다.

법원은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공개대상정보로, 북구와 남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어떤 법 위반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저하되거나 영위에 영향이 있겠지만 해당 어린이집이 관련법을 위반한 데 따른 반사적 불이익으로, 적극적으로 보호할만한 경영,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재판부는 또 “위반사실이나 시정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방지돼 영위에 관한 신뢰성을 높이는 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정보공개로 보호자들은 객관적 정보를 제공받아 개별 어린이집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려 적극적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고 운영자들은 이를 의식,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